


문명의 위기를 넘어

유승직
김선용
한상민
이종철
박정순
이경구
엄연석
김세정
강중기
심혁주
공저



 학자원

숫자로 보는 한국: 기후변화와 코로나 시대에 지혜로운 삶의 선택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김 선 응 교수

요약문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적/사회적/개인적으로 매우 혹독한 시련(인명 피해, 재산 손실, 실업, 혼란, 갈등 등)을 겪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연재해(최장 장마,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손실 규모만 약 70조원에, 손실된 일자리수가 약 70만개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2020년 이전)의 한국의 현실과 모습을 숫자(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그 답(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숫자(통계)가 우리 개인과 사회 전체의 모습을 낱낱이 여과 없이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 우선 2020년 이전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성장 동력인 ‘수출액’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인 ‘출생아수’의 감소에 관해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사교육, 그리고 부동산(아파트) 거래의 세태를 살펴본다. 세 번째는 가계/개인, 기업, 국가의 빚에 관한 통계를 살펴본다. 네 번째로는 저연령층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전망한다. 다섯 번째로는 주요 보건 통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들 다양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한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시대에 개인/가족/이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지 방법(선택)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저자 약력 (다음 페이지)

∴ 저자 약력

유승직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Essays on Environmental Economics」(1995)로 환경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녹색성장위원회,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기후체제와 집단에너지』(공저, 2017) 외에 40편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다.

김선웅

동국대에서 통계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의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연계전공의 책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아울러 동국대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를 이끌고 있다. Encyclopedia of Survey Research Methods(Sage Publications, 2008)의 공저자이며, Feasibility and Quality of a National RDD Smartphone Web Survey: Comparison with a Cell Phone CATI Survey(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021), 「믿지 못할 선거 전화여론조사? 대안은 없는가?: 2010-2016 선거여론조사를 중심으로」(한국조사연구학회, 2016)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한상민

독일 베를린 자유대 환경정책연구소에서 「Global Climate Change and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림대 객원교수, 한국외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독일 및 EU 기후변화/환경정책, 탄소중립 도시/지방정책, 남북한 환경협력 등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Expert Reviewer 국내 학자로 제6차 평가보고서 검토작업 및 발간에 참여했다.

이종철

연세대에서 「헤겔 〈정신현상학〉에서의 이성 개념 연구」(2005)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